

# 196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의 형성과 작품특성\*

문선영\*\*

## <차례>

1. 서론
2. 196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의 형성 ; 용어와 범주
3. 196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의 작품특성
  - 1) 연속 홈드라마의 특성 ; 온전한 가족 복원의 강화
  - 2)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의 특성 ; 이상적 가족모델 구현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의 또 다른 지점을 발견하는데 의의를 두고 라디오 홈드라마의 형성과 작품 특성을 살펴본 글이다. 라디오 홈드라마는 1950년대 후반부터 멜로드라마와 함께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홈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일정하게 지속되어왔으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이때 홈드라마는 '가족 중심의 이야기로 가족회복이라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가진'다는 포괄적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였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연속홈드라마와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

연속 홈드라마인 경우 1950년대 후반의 홈드라마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재, 주제 등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는 1950년대 홈드라마와 비교해볼 때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가족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는 점에서 이전 시기 연속 홈드라마 작품들과 연장선상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가족 갈등을 설정하고 있는

며 이로 인해 가족 복원의 서사는 강화된 양상을 보인다.

1960년 중반부터 활발히 방송되었던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연속홈드라마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처음 정착되기 전까지 연속극의 의미가 부각되어 연속 홈드라마와 별다른 차이점 없이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각 방송사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를 고정적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정한 규칙들을 가지게 되면서 연속 홈드라마와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이상적인 가족 모델을 이미 설정하고 일정한 형식 안에서 당시 가족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작품의 이야기 구성은 일상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상사가 반복되며 매화의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간단한 갈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라디오 홈드라마의 작품성향과 변이는 1960년대 영화에서의 홈드라마 제작현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시기 홈드라마로 규정되는 대다수의 영화들이 라디오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디오 홈드라마는 197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가 정착되는 시기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라디오에서 홈드라마는 당시 영화와 이후 텔레비전 이행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라디오 드라마, 홈드라마, 방송극, 시추에이션 드라마, 연속극, 가족

## 1. 서론

1960년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가정용 트랜지스터라디오로 인해 수신기 보급이 급증되는 시기였다.<sup>1)</sup> 또한 라디오는 KBS 공영방송 외의 각종 상업방송국의 개국과 함께 이 시기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된다.<sup>2)</sup> 각

1) 1962년에 국민의 후원을 받아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과 '스피커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라디오 수신기 보급을 추진하면서 외제 수신기의 수입이 늘고, 국내 생산된 제품에 수요가 증가하여 1960년대에 라디오 수신기가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또한 이 무렵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가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설의 충족여부를 측정하는 최저기준을 인구 100명당 일간신문 10부, 라디오 5대, 영화 관람석 2석, 텔레비전 2대로 정하고 모든 국가는 당면목표로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기준에 라디오가 1963년 1월 이전인 1962년 말 쯤 인구 1000명당 보급대수가 51.90%로 가장 먼저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후 1967년에는 81.50%까지 라디오 수신기 보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김영희, 『한국의 라디오시기의 라디오 수용현상』, 『한국언론학보』 제47권 1호, 2003, 144~145면).

2) 문화방송 MBC(1961), 동아방송 DBS(1963), 서울 라디오 RSB(1964) 등이 1960년대 초에

\* 이 논문은 '2단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선 인터뷰를 선뜻 응해주신 작가 박서림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2011년 11월 발표 당시 논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토론자 윤석진 선생님을 비롯해서, 투고 이후의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고려대학교 박사 수료

방송국마다 청취율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라디오 드라마는 편성된 양적인 부분이나 청취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sup>3)</sup> 특히 연속극은 방송 전체적인 면에서 상위순위의 하나로서 꾸준히 인기상승의 길을 유지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각 방송사들은 요일별로 30분씩 오락물 시리즈를 편성했으나 청취율 경쟁이 치열해지자 매일 특정시간마다 연속극을 1~2개 이상 방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sup>4)</sup> 이처럼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는 양적인 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였다. 그러므로 라디오 드라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1960년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1970년대 텔레비전 시대로 이행되는 연결 지점으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정착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점에 의의를 두고 최근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방송극의 역사를 파악하는 방식에서 부분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sup>5)</sup> 그 외에는 특정 작가, 작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sup>6)</sup> 멜로드

개국하면서 치열한 청취율 경쟁을 가져왔다. 청취율 경쟁은 오락은 물론이고 방송보도에서도 빈번히 전개됐다. 여기에는 당연히 KBS보다 상업방송이 발 빠른 면을 보였다. MBC의 경우, 주 청취자 시간대에 청취자 참여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해 60년대 내내 오락 프로그램이 50%대를 넘었다. 그 중에서 드라마 경쟁이 가장 두드러졌다(임종수, 『한국방송의 기원』,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2004, 388면).

- 3) 1963년에 KBS 라디오에서 조사한 방송 청취율을 살펴보면 1. 연속방송극 2. 아마추어 쇼 3. 퀴즈 올림픽 4. 직장음악 5. 민요를 찾아서 6. 희망음악회 7. 수요일밤의 향연 8. 일요일연속극 9. 오후 시간 뉴스 10. 어린 시간 11. 뉴스 스토리 12. 주부시간 13. 오전시간(뉴스) 14. KBS 무대 15. 마음의 샘터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속방송극이 25.3%로 가장 많은 청취율을 보이고 있다(방송문화연구실, 『방송문화』, 1963년 5월호, 21면).
- 4)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사』, 1977, 403~404면.
- 5) 양진문 『한국 방송극의 역사적 고찰』, 『한국언론연구』, 2003, 조항제, 『한국 방송의 역사와 전망』, 한울, 2003.

라마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윤석진의 두 편의 논문<sup>7)</sup>과 1960~70년대 초기까지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양상을 정리하고 있는 윤금선의 논문만이 이 시기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러므로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 연구는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의 중요성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당시 방송된 음원, 라디오 대본이 거의 소실되었기 때문에 1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라디오 드라마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1차 자료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연감, 신문, 잡지의 관련 기사, 당시 방송현장자의 구술자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의 또 다른 지점을 발견하는데 의의를 두고 196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에 주목하고자 한다.

1950년대 연속극의 경향이 당대 배경의 애정소재 멜로드라마나 홈드라마 위주였고 사극이나 반공극, 계몽극 등은 극히 적은 수를 차지했다면,<sup>9)</sup> 1960년대는 홈드라마, 사극, 반공극, 추리극 등 다양한 성격의 작품이 등장했던 시기였다. 그 중에서 홈드라마는 1950년 후반부터 멜로드라마와 함께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59년 방송이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고 특히 홈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새롭게 부각되었다. 방송 제작자들은 청취자에 대한 ‘홈서비스’라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 6) 1960년대 라디오 드라마의 개별 작가,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석진, 『한운사의 방송극 <현해탄은 알고 있다> 고찰』(『비평문학』, 2005), 『극작가 한운사 연구』(『한국극예술연구』 24집, 2007), 고선희, 『1960년대 매체 전환의 한 양상-한운사의 방송극과 영화』(『대중서사연구』 19호, 2007).
- 7) 윤석진, 『라디오 드라마 연구를 위한 시론』, 『인간, 사회,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강대 언론대원 개원 5주년 기념 논문집, 1997; 『1960년대 라디오 단막극 연구-기부장제의 해체와 복구 실상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10집, 1996.
- 8) 윤금선, 『1960~70년대 초기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32집, 2010.
- 9) 이영미, 『1950년대 방송극』, 『대중서사연구』 제17호, 2007, 130면.

러한 의도 하에 기획된 프로그램이 ‘가정 오락회’ 같은 오락 프로그램이나 홈드라마의 방송이었던 것이다.<sup>10)</sup> 이 시기에 <느티나무 있는 언덕> (최요안 작, 1958), <로맨스 빠빠>(김희창 작, 1959), <내 가슴에 그 노래를>(유호 작, 1959), <박서방>(김영수 작, 1960) 같은 홈드라마가 등장했다. 당시 방송현장에서는 멜로를 “아름다운 낭만의 세계”로, 이들 홈드라마를 “건실한 현실주의”로 나누어 보고 있었다.<sup>11)</sup> 하유상에 따르면 홈드라마는 연속 방송극이 생긴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멜로 드라마라든지 스릴러 드라마 같은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홈드라마는 뚜렷한 장르로 규정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장르와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방송극 작가에게도 홈드라마는 애정소재의 멜로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작품으로 보고 있다.<sup>13)</sup> 이처럼 홈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일정하게 지속되어왔음을 알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이때 홈드라마는 ‘가족 중심의 이야기로 가족회복이라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가진’다는 포괄적 의미로 통용되었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연속 홈드라마와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 연속 홈드라마인 경우 1950년 후반의 홈드라마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재, 주제 등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의 경우 독립된 에피소드 형식을 통해 이전시기의 홈드라마와 다른 변별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글은 196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밝히고 당시 작품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한국방송 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84면.

11) 한국방송협회, 위의 책, 307면.

12) 하유상, 『라디오, TV 드라마 작법』, 성문각, 1971, 158면.

13) 김희창·조풍연 대담, 『만들어서 나쁜 건 없지』, 『방송』, 1961년 11월호, 42면.

## 2. 196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의 형성 ; 용어와 범주

홈드라마(Home Drama)는 가족 대상 드라마를 뜻하는 것으로 영어권에는 없는 어휘이다. 1930년대 미국 영화에서 ‘홈코미디’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홈드라마’로 전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14)</sup> ‘홈드라마’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영어권 용어를 찾자면 ‘situation comedy’이다. 이는 현재 많이 통용되고 있는 시트콤, 시추에이션 드라마의 뜻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시추에이션 드라마는 영미권에서 연속물 형태의 방송드라마를 나눌 때 사용하면서 시작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즉 연속물은 형태적인 면에서 시리얼즈(serials)와 시리즈(series)로 나뉘게 된다.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 하나의 줄거리가 계속 이어져가는 시리얼이며, 회별로 에피소드가 종결되면서 연속되는 시리즈는 매우 적다.<sup>16)</sup> 1960년대 우리나라의 라디오 홈드라마는 위와 같은 의미의 시리즈 형태의 시추에이션 드라마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시추에이션 드라마’라는 용어는 정착되기 힘들었고 ‘홈드라마’가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인다.

전후 일본의 NHK방송이 미국 진주군에 의하여 지도되었는데 최초로 내놓은 것이 ‘소우프 오페라’라는 형식의 연속 방송이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시추에이션 코미디’라는 종목으로서, 이것은 일정한 환경에서 특

14) 안환용,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시대별 주요 홈드라마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3, 18~19면.

15) 1940년대 이후 미국은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대체하면서 라디오 시트콤과 코미디로부터 텔레비전 시트콤을 발전시켰다. 주창윤, 『로맨틱 시트콤의 장르 관습의 미학』, 『텔레비전 드라마』, 문경, 2005, 98면. 이 글에서는 라디오 시트콤의 경우 현재의 텔레비전 시트콤과 다른 의미로 변별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에피소드 이야기의 독립된 형식인 시리즈의 개념만이 적용된 것이 아닐까 한다.

16) 조항제, 『한국방송의 근대적 드라마의 기원에 대한 연구-청실 홍실>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권 1호, 2005, 8면.

정의 주인공이 꼭 등장하여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려지는 드라마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코미디라고 하면 개그가 많이 든 것이나 얹치락 뒤치락의 희극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추에이션 코미디’라고 부르는 어딘가 쑥스러워서 프로그램 제목명으로 쓰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생긴 것이 이 ‘홈드라마’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sup>17)</sup>

위의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홈드라마는 형식적인 면에서 시리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추에이션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작품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에서 적극적 수용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이 시기 라디오 홈드라마의 개념과 그 범주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리얼 형태의 연속극과 매회 독립적 구성 방식을 가지는 시리즈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두 가지 방식 모두 홈드라마라는 의미로 통용하였다. 이는 1960년 대 초 라디오에서 홈드라마는 ‘가정을 소재로 한 작품, 가족 갈등을 다루는 것, 결말이 가족회복을 통해 해피엔딩에 이르는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에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홈드라마의 광의화(廣義化)는 새로운 형식인 시추에이션 홈드라마가 정착될 때까지 내용, 형식적인 면에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홈드라마는 우리말로 바꿔 놓는다면 가정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정극 하면 홈드라마의 어감과는 조금 달라 인정극이나 신화극 같은 냄새가 없지 않으나 그 냄새에 치우치지 않은 가정극쯤으로 해 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략)… 특수한 지식층 사이에 일어나는 이념의 갈등이나 혹은 특수한 성격을 추궁하여 거기서 생기는 사건 같은 것이 테마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과 사회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17) 하유상, 앞의 책, 158면.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가정에 국한하고 사건도 극히 가정적인 테두리를 보전하게 된다.<sup>18)</sup>

최요안<sup>19)</sup>의 정의에서는, 홈드라마가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멜로드라마와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 작품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멜로드라마와의 차별점은 1950년대 후반 라디오 홈드라마에 속하는 작품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파악가능하다. 당시 이 작품들은 멜로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느티나무 있는 언덕>, <내 가슴 속에 그 노래를>)과 코미디적 경향이 강한 작품(<로맨스 뽀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멜로드라마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홈드라마’라는 것은 남녀 간의 애정소재에서 벗어나 가족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작품을 멜로나 코미디의 구별 없이 포함하여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초기 홈드라마의 경우 ‘홈 멜로’, ‘홈 코미디’라는 의미와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시리얼 형태의 연속극이었다.<sup>20)</sup>

그러나 라디오에서 홈드라마라는 의미는 1962년 이후 조금씩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작품이 KBS의 <유쾌한 3형제>(1962)이다.<sup>21)</sup> 이 작품은 자유연애결혼을 주장하는 두 아들과, 부모가 정해준 배필을 순수

18) 최요안, 『방송극 연구』, 입문사, 1963, 118~119면.

19) 최요안은 1950~60년 활발한 활동을 보인 방송극 작가이다. 그는 1948년 3월 방송극 공모에 <세뱃돈>으로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느티나무 있는 언덕>, <도라지 고개의 전설>, <그대 목소리>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다.

20) <해바라기 가족>(김기팔 작, 1960), <꽃과 낙엽이 있는 언덕길>(주태익 작, 1961), <밭의 훈장>(김석야 작, 1962) 등은 ‘홈 멜로’로, <새벽>(김영수 작, 1962), <큰사위, 작은 사위>(김영수 작, 1964)는 ‘홈코미디’로 명명되고 있다(한국방송문화협회 『KBS 연감』, 1963~1964년 참조).

21) 출연한 성우는 장남 역의 주상현, 차남 역의 오승룡, 막내 역의 오정한, 아내 역의 김선희, 아버지 역의 구민, 어머니 역의 김은숙이다. 작가는 처음 김영수가 테이프를 끊었으나 뒤이어 윤혁민, 최요안, 조훈파로 이어졌고 연출은 이상만이 담당했다(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1977, 418면).

히 맞아들여 형들보다 먼저 결혼을 한 막내 아들을 둔 부모가 겪는 가족 이야기이다. <유쾌한 3형제>는 매회 독립된 구성형식을 갖추어 방송되는 시추에이션 형태의 작품으로 된 홈드라마였다.<sup>22)</sup> 한국방송연감에서는 이 작품이 이전의 《일요연속극》이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롭게 편성된 것임을 알리면서 “《일요연속극》이 줄거리 위주의 멜로드라마 위주였던 관계로 청취자들이 같은 줄거리를 쫓아 1주일씩 기다린다는 데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었던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신설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쾌한 3형제>를 라디오 드라마에서 캐릭터를 고정시킨 시추에이션 형태의 본격적인 시리즈극이 시도될 가능성을 열어 준 작품으로 보고 있다.<sup>23)</sup>

<유쾌한 3형제>의 시작을 기점으로 시추에이션 형태의 홈드라마가 방송되었으며, 1964년 이후부터는 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이 시기부터 라디오에서 홈드라마는 매회 독립된 이야기가 완결되는 ‘시추에이션 드라마’라는 의미가 강해진다. 각 방송사에서는 경쟁적으로 ‘홈드라마’ 작품을 방송하는데, 이때부터 ‘장편 연속 홈드라마’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방송연감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① <우리아빠 최고>1964년 10월 1일 탄생한 장편 연속 홈드라마로 바야흐로 최고 400회를 육박하고 있다. / 동아방송의 《홈코미디》는 아침 8시 라인의 대담한 기획, 코미디 타치의 장편 연속 홈드라마로 1965년 12월 20일 신설됐다. / <오늘도 푸른하늘>은 장기간 계속되는 아침 7시 20분에서 7시 30분까지 방송되는 연속 시추에이션 홈드라마.<sup>24)</sup>

22) 위의 책, 418면.

23) 한국방송문화협회, 『KBS 연감』, 1963, 65면.

24) 한국방송연감편찬위원회, 『한국방송연감』, 1965, 214~215면.

② KBS<즐거운 우리집>1965년 4월 봄개편 때 오전 10분간의 홈드라마. KBS의 장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추에이션 홈드라마.<sup>25)</sup>

①과 ②의 인용에서 보듯, 이때부터 라디오에서 홈드라마는 ‘장편 연속드라마’, ‘시추에이션 홈드라마’가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홈드라마’라는 타이틀을 걸고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의 두 방송사의 ‘홈드라마’ 프로그램 목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 MBC 「홈드라마」 편성표 (매일 오전 7시 25분~7시35분)<sup>26)</sup>

작품명	작가	연출	기간	회수	출연
청대문집 새댁들	김영수	하현규	6.1~7.5	34	이춘사, 서계영, 나문희, 전운
대머리 총각	김진욱	백민	7.6~8.2	27	이우영, 임옥영, 이승일
장군 어머니	최요안	김관철	8.3~8.31	29	이혜경, 구민, 강설원
새언니	장사공	김관철	9.1~9.30	30	정은숙, 김영배, 이향미
해마라기 처녀	최일수	김관철	10.1~10.31	31	고은정, 임옥영, 전운
골목안의 미소	이세원	김영현	11.1~11.30	30	구민, 장서일
여자가 있는 곳	신태승	김영현	12.1~12.31	31	정은숙, 김성원, 전경자

【표 2】 RSB 「명랑가정연속극」 편성표 (매일 오전 7시 30분~7시 40분)<sup>27)</sup>

작품명	작가	연출	기간	횟수	출연
아들날고 딸날고	조훈파	오사랑	5.11~6.7	26	구민, 주상현
애처가	이경재	이동희	6.8~7.5	27	구민, 주상현

25) 한국방송협회, 앞의 책, 513면.

26) 방송연감편찬위원회, 『한국방송연감』, 1965, 335~336면.

27) 「명랑 가족연속극」은 서민가정의 웃음과 즐거움을 묘사한 연쇄극으로 매일 독립된 내용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이었다. 서울 라디오 RSB는 1964년 5월 9일 개국하자마자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위의 책, 439면).

아내마음, 남편마음	이용찬 유호 하유상 이경재	최상현	7.6~8.2	28	고은정, 김소정, 오현경
시집살이	이성재	최상현	8.3~8.16	14	남성우, 오현주
이웃 사촌	김중희	최상현	8.17~8.30	14	구민, 이우영
우리집 찢득이	김기팔	최상현	8.31~9.13	14	신선녀, 김정원
아이디어 부인	이민우	최상현	9.14~9.27	14	백성희, 주상현
폼폼이와 덜렁이	김영수	이경재	10.1~11.1	32	김은숙, 오현경, 김소정
아차 부인	조남사	홍은원	11.2~		남성우, 임옥영

현재 확인되는 ‘홈드라마’라는 타이틀을 세운 프로그램은 MBC와 RSB 뿐이며, 다른 방송사에는 이와 같은 타이틀화 된 고정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 방송사에서 ‘홈드라마’를 프로그램명으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인 시추에이션 홈드라마 작품들은 꾸준히 제작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각 방송사의 홈드라마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각 방송사의 홈드라마 작품 (오전 7시대나 저녁 7시대에 10~15분 방송)<sup>28)</sup>

작품명	작가	연출	방송년도	출연진	방송사
유쾌한 3형제	김영수 윤혁민 최요안 등	이상만	1962~	주상현 오승룡 김은숙	KBS
명량한 우리집			1965. 4~		KBS
즐거워 우리집	추식 이경재 노능걸 박서림 등	박효서		구민 이혜경 이창환 등	KBS
우리집 만세	박조열	엄복영	1971. 10~		KBS

28) 이들 작품들은 보통 100회 이상 장기간 방송되었다. 특히 「즐거워 나의 집」, 「아차부인 재치부인」, 「오늘도 푸른하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1,000회를 넘는 기록을 거뒀던 작품들이다. 위에서 제시한 작품 이외에도 각 방송사마다 시추에이션 형식의 홈드라마들이 방송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목록은 각 방송사의 방송연감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작품만을 정리한 것이다.

공처가3대	유호	변하림	1965. 12. 20~	구민, 조상현, 김영식 등	DBS
오늘도 푸른하늘	주태익 노능걸	노능걸		김영식, 이은미 등	DBS
우리 아빠 최고	유호 이용찬	변하림, 현리	1964. 10~	남성우, 오정환 등	DBS
아빠하고 나하고			1964~	장유진, 김무생 등	TBC
아차부인 재치부인	조남사 김중희 박서림 노능걸 등	허식	1965.10~	이선영, 박병오, 이춘사 등	TBC
딸부잣집	추식 최호영 김광섭 백전교 등	김포천	1964. 1~	임옥영, 정은숙, 전운 등	MBC
희망주택 207호	조훈파 양근승 김진옥 등	김영수	1966~		MBC
비둘기 집	노능걸		1967~		MBC
감나무 집	이성재		1967~		MBC
우리집 만세	노능걸		· 1967~		MBC
매화선생댁	이인구		1967~		MBC
장군명군	박서림	임영웅	1970. 4.1~		CBS

위와 같은 방식의 홈드라마는 ① 매일 10~15분간 방송되는 연속극 ② 가족 구성원으로 된 고정된 캐릭터 ③ 매회 독립된 이야기 구성방식 ④ 장기간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정해진 틀을 가진 작품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1960년대 라디오에서 홈드라마는 ‘시추에이션 형태의 드라마’라는 의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기존의 ‘연속 홈드라마’와 구별되었다. 이러한 점은 방송문화연구실<sup>29)</sup>의 합평회를 통해서 확인

29) 방송문화연구실은 방송의 질적 향상, 발전을 위해 마련된 연구 기관이었다. 방송현장자 이외의 방송평을 했던 정순일, 김석야를 주축으로 1957년 6월 1일 방송관리국 산하에 설치되었다. 방송문화연구실의 업무는 방송관련 조사, 연구, 합평 등이 주였으며 외국방송과 우리 방송을 비교하여 새로운 포맷을 창출하는 일도 했다. 또한 모니터지 발간, 월간, 주간 「방송」을 발간하는 등 방송과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였다.

할 수 있다. 합평회에서 검토된 홈드라마에 대한 의견의 일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30)</sup>

연속 홈드라마를 제외한 시추에이션 홈드라마가 갖추어야 할 특징은 먼저 상황설정이 다른 연속극에 비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로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무엇보다도 청취자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개념에 확실한 요소를 가져야 한다.<sup>31)</sup>

이처럼 1960년대 방송에서는 홈드라마를 ‘연속 홈드라마’와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로 구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라디오에서 홈드라마는 이 두 가지를 ‘가족 중심의 이야기’ 라는 의미로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1960년 중반 이후 시추에이션 형태의 홈드라마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홈드라마’를 칭할 때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각각 해당하는 작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속 홈드라마는 이전 시기의 홈드라마와 형식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조건 아래 1950년대 후반의 연속극과 대별되지 않는다. 또한 소재, 주제 표출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주제 표출 방식에서 이전 시기보다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형식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며, 그에 따른 주제 표출 방식도 이전 시기의 홈드라마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은 연속 홈드라마와 시추에

방송문화연구실의 참여한 방송인들로는 한운사, 이상희, 서규석 등이 있다(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 1995, 237~241면).

30) 방송에서의 ‘합평회’는 특정 프로그램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합평회로서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방법, 구성방법, 출연자 연기, 역할, 내용표현 등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검토하는 모니터제도였다. 각 방송사들은 방송문화연구원, 제작실무자와 편성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방송의 질적향상을 위한 합평회를 실시하였다(한국방송연감편집위원회, 앞의 책, 324~325면).

31) 같은 책, 327면.

이션 홈드라마의 각각에 나타난 작품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196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의 작품 특성

#### 1) 연속 홈드라마의 특성 ; 온전한 가족 복원의 강화

1950년대 후반 홈드라마에 속하는 <로맨스 뽀뽀>(최요안 작, 1958)는 평범한 가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엮어 나가면서 당시 불안정한 가정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균열된 가정은 아버지 중심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재건되는 양상을 보인다.<sup>32)</sup> 즉 권위있는 아버지, 인정받을 만한 아버지가 등장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을 다시 일으키는 방식이다. 설령 비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아버지라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를 극복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결국 온전한 가족 구현에 이르기까지의 원인과 해결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불안정한 가정의 갈등현상을 보여주지만, 화해의 과정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와 유사하다. 그러나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sup>33)</sup> 가족은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공동체이다.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에서는 이러한 가족 갈등 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며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한 가족 재건이 강화되어 있다.

32) 이영미, 앞의 글, 142면.

33)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에서도 <박서방>(김영수, 1960), <해바라기 가족>(김기팔, 1960), <마포사는 황부자>(추식, 1964) 등 1950년대 후반 아버지 중심의 가족 재건 주제와 유사한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950년대 후반 연속 홈드라마와 비교할 때 변화된 점에 중점을 두었기에 위의 작품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꽃과 낙엽이 있는 언덕길><sup>34)</sup>에서 장성진은 세 딸과 아들 하나를 아내 없이 홀로 열심히 키워온 아버지이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안정적인 가정생활 또는 애정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방황한다. 장성진은 불안정한 가정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두 딸, 유부녀와 불륜관계에 빠져있는 막내아들 등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는 자식들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을 아내의 부재에 두고 있다. 즉 그는 파괴된 가정의 원인이 과거 자신의 일을 위해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가출한 아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정을 버린 아내를 이해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한다.

“어딜...돌아와, 무슨 낫짜으루...내 눈에 흙이 들어간 담에라두 네 어머니 안에 들어선 안돼. 여자가 자식 서방 버리고 나갔어. 천벌을 받는다.”

“그러기 개심하신다면...”

“개심 여부가 없어!”<sup>35)</sup>

자식들은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와는 달리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장성진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이 가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가족의 갈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내, 어머니가 그 가정으로 복귀를 인정받으면서부터이다. 장성진은 막내아들의 불륜사건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자 충격으로 쓰러지게 된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아내를 용서한다. 결국 아버지의 용서와 어머니의 귀환은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킨다.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했던 두 딸의 가정이 회복되며, 막내아들도 불륜관계를 정리하고 시골로

34) 주태익 작, 이보라 연출(KBS, 1961.5, 1~30까지 27회 방송).

35) 주태익, <꽃과 낙엽이 있는 언덕길>, 《인기방송작품선집》, 제일출판사, 1961, 26면 (이 작품집은 방송대본을 집필한 작가가 소설체 형식으로 바꿔서 출판한 것인데, 방송작가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소설체로 전환했다 할지라도 대화 위주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라디오 대본과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려가 새 삶을 살 것을 약속한다.<sup>36)</sup>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여성(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이것은 1960년대 여성 노동력의 확대에 따라 가정의 모습도 변화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가정주부의 존재 의미가 부각될 정도로 가정에서 아내(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 시기 노동하는 남성 못지않게 그 존재의 중요성을 획득한 것은 주부였는데 이상적인 주부모델은 중류층 가정에서 안살림을 맡고 있는 알뜰하고 헌신적인 주체로 간주되었다.<sup>38)</sup> <꽃과 낙엽이 있는 언덕길>에서 나타나듯이 가정 내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 확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온전한 가족 복원을 위해서는 희생적인 아버지 뿐 만 아니라 어머니의 안정적인 위치가 확보되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딸의 훈장><sup>39)</sup>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딸의 훈장>은 아내(어머니)의 결핍으로 인한 부녀(父女)관계의 불안정한 갈등 양상을 재현하고 있다. <딸의 훈장>에서 홀로 자신을 키워 온 아버지를 향한 딸의 애정은 지나칠 정도로 강하다. 아버지 또한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이들은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아버지에게 좋아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보이는 딸의 반응은 마치

36) 당시 방송평에서는 이 작품을 “<꽃과 낙엽이 있는 언덕길>에서 작가는 애정과 윤리를 두고 신구 양세대의 갈등을 예리하게 묘사하였다. 홈드라마가 흥작인 방송극이 금년에 거둔 수확”이라고 좋은 홈드라마로 평가하고 있다(백영진, 『방송』 12월호, 1961, 46면).

37)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에서 가정 내 여성(아내, 어머니, 딸, 며느리)의 역할에 다양한 관심을 제시한 작품들은 많다. <시동생>(박서림), <우리엄마 최고>(박상천), <새엄마>(김영수), <큰사위, 작은사위>(김영수) 등이 있으며, 해당되는 작품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는 앞으로 작품 발굴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후속 연구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38)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2007, 362면.

39) 김석야 작, 이상만 연출 (KBS, 일요연속극, 1962) 『KBS 연감』의 작품 소개와 영화화된 동명의 시나리오 참조.

아내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딸은 아버지가 결혼하고자 결심한 것도 아닌 데, 단지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도 수궁하려 하지 않고 가출을 하고 만다. 이는 1960년대 초, 혼란하고 불안정한 가족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960년대 여성의 노동 인력화 경향에 따라 정서적인 부분을 가정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가정은 불안정한 모습을 띠게 된다.<sup>40)</sup> <딸의 혼장>에서 보여주는 불안정한 가족의 모습은 아내, 어머니의 결핍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발생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중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존재가 결핍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관계도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딸의 혼장>은 가족의 결핍된 요소를 채워주는 존재를 영입함으로써 부녀(父女)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결말을 이룬다. 딸이 자신의 비이성적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이성교제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예정에 없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서두르면서까지 아버지의 재혼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가족 형태를 재건하려 애쓴다. 결국 이 작품은 아버지와 새 어머니, 그리고 딸 커플의 행복하고 다정한 만남으로 마무리 된다. 이는 1960년대 가정의 갈등과 화합을 극단적인 서사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불안정한 가족의 구조를 극복하고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전통적 가족 구조의 회복이라는 주제 안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연속 홈드라마에서도 당시 가족구조의 모순은 드러난다. <새댁><sup>41)</sup>에서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들은 전통적 가족사회의 며느리 역할의 불합리성을 표출하고 있다. <새댁>의 각 부

부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아들 부부는 아내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아들 부부는 반대의 경우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 두 가정의 실권은 경제적인 조건여부에 달려있다. 큰아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처가의 도움으로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다. 둘째 아들은 은행을 다니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 부부관계에서 우위가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노부모와 두 아들의 가정, 미혼인 막내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 가족은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유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두 며느리에 있다. 두 명의 며느리는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중류층 가정의 여성들이다. 그러므로 그 녀들은 항상 전통적 가족구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시부모, 남편과 갈등을 일으킨다. 작품에서 근대적인 가족관을 지닌 며느리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긍정적인 여성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인물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형 며느리족을 풍자했다고 볼 수 있는 홈코미디. 여권과 자유를 속되게 주장하는 큰며느리와 요령위주의 계략에 능한 둘째며느리” 등으로 두 여성은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무너뜨리는 부정적 인물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가족 갈등은 막내아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해결된다. 시골에서 올라온 셋째 며느리는 변해가는 서구문화에 흡수되지 않은 인물이다. 그녀는 시부모를 섬기는 것을 당연한 미덕으로 삼고 가정 내에서 희생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셋째 며느리는 도시에서 거주해 온 중류층 이상의 여성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형으로 강조된다. 결국 이 작품에서 현명한 여성, 모범적인 며느리 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새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시댁식구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며 자신의 임무라고 여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셋째 며느리의 모습에 나머지 두 며느리

40) 윤석진, 「1960년대 라디오 단막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10집, 72면.

41) 김영수 작, 연출(KBS 라디오 극장, 1962년 7월 2일부터 총34회 방송), 『KBS 연감』에 소개된 줄거리와 영화화 된 동명의 시나리오 참조.

도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는 급작스러운 결말을 보여준다. <새댁>은 초반부에는 전통적 가족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과 모순 자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극적인 결말로 해결된다. 결국 이 작품은 전통적 가치관을 부각시킴으로써 온전한 가족 복원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에서 가족 간의 갈등 양상은 1950년대 후반 홈드라마에 비해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근대적으로 변형된 가정은 국가사회적인 근대화의 욕망이 일상적 생활영역으로 침투하는 통로였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의 역할 모델 등은 대중매체를 통해 종종 제시되었다. 부부는 집안을 일으킨다는 공동목표 아래, 남편은 집안의 대표자로서 아내는 가정의 관리자로서 재현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가정 관리자로서 남편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여야 했으며 자녀에게는 전문화된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 했다.<sup>42)</sup> 이러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가정 내의 여러 관계들은 설정되고 정립되었다. 당시 연속 홈드라마 작품에서 재현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등 가족 내의 구성원들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지만 결국은 화해를 통해 화합하는 서사를 이룬다. 이는 1950년대 라디오 홈드라마에서 재현되었던 갈등이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가정 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극적인 해결을 통해 온전한 가족 복원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서사를 이루고 있다.

## 2)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의 특성 ; 이상적 가족 모델 구현

196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방송되었던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연속홈

42) 정영희, 『196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여성지 '여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3호, 2009, 489면.

드라마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처음 정착되기 전까지 연속극의 의미가 부각되어 연속 홈드라마와 별다른 차이점 없이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각 방송사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를 고정적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정한 규칙들을 가지게 되면서 연속 홈드라마와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연속 홈드라마에서 가족 간의 갈등 제시는 가족 복원 서사의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이에 반해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서 가족 복원은 이미 상정된 전제 하에 가족 재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서 가족은 균열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이미 안정적인 가족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작품들은 이상적 가족 모델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조건에 부합되는 일정한 형식들을 갖추고 있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의 성립 조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캐릭터 구현이다. 고정된 인물형이 장기간 계속되는 드라마를 이끌어가야 했기 때문에 인물 설정은 대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다. 당시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대부분이 특정한 모델 가정을 만들어 그 모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전개시켰다. 그러기에 인물들은 가정에서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sup>43)</sup> 또한 청취자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일상에 가까운 인물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은 일정한 규정처럼 동일하였는데, 대부분 도시에 사는 중류층 가정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는 라디오 수신기 보급대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65년 조사에서 라디오는 대중들이 정보를 얻는 1순위 정보매체가 되었다. 이 점은 라디오의 주 청취자층이 점차 중류층 이하로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한다.<sup>44)</sup> 이는 드라마 역시 이들이 주로 즐기는 장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

43) 방송문화연구원, 앞의 책, 327면.

44) 1965년 지역별 정보원을 조사한 기록을 보면 전국 합계 라디오 방송(37.6%)이 신문(31%)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희, 앞의 글, 151~154면).

한 청취자들은 일상생활의 유사한 모습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는 홈드라마에 공감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아빠 최고><sup>45)</sup>는 동아 방송에서 장기간 방송한 홈드라마로 400회 이상 지속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서울 도심지에 사는 중류층 샐러리맨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이야기이다. <우리아빠 최고>는 회사에서 계장 신분인 주인공 우리 아빠 가정과 과장네 가정이 중심이 되어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홈드라마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3대의 공처가가 벌이는 갖가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공처가 3대><sup>46)</sup>의 가정도 중류층으로 아버지는 회사과장, 아들은 철도청 직원이다. 이들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아내에게 가져다주고 용돈을 받아쓰는 서민 가장들로 그려지고 있다. 아내들은 풍족하지 않은 남편들의 월급을 절약하면서 가정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여성들로 제시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갈등은 소소한 사건들인데, 예를 들어 아내들이 준 용돈이 적다고 느낀 아버지와 아들이 월급을 빼돌리려다 그 계략이 들켜 아내들에게 당하는 에피소드, 아내들과 남편들의 용돈 인상 협상 에피소드 등, 서민층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sup>47)</sup> <즐거운 우리집>도 서울 중류가정으로 “아버지를 회사의 계장으로 잡아 서민가정의 가지가지 술한 사연”을 그리고 있다.<sup>48)</sup>

이들 홈드라마는 고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중류층의 3대로 구성된 가족 이야기가 많았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은 남성으로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로 설정되며 어머니는 전업주부, 자녀는 대

45) 동아방송(월~토 오후 6시 30분~6시 45분) 1965년 12월 18일까지는 작가 유호와 연출가 변하림이 제작을 담당하다가 12월 20일 프로 개편과 함께 작가 이용찬, 연출가 현리가 이어서 썼다. 각 가정의 아빠 역할로 성우 남성우, 오정환이 출연했다(한국방송연감편찬위원회, 앞의 책, 215면).

46) 동아방송(1965, 매일 오전 8시 30분~8시 40분까지) 작가 유호, 변하림 연출. 구민, 주상현, 김영식 등 출연(위의 책, 214면).

47) 영화화 한 시나리오 참조.

48) 한국방송공사, 앞의 책, 424면.

체적으로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의 경우 성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요안은 “반드시 어린아이가 빠져서는 안되며, 어린아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가정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sup>49)</sup>라고 하며 홈드라마에 있어서 어린아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서는 대체적으로 성인의 자녀보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가 등장하였다. 이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가정 분위기를 그리는 데 어린아이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서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형태는 1960년대 당시 중산층 가정 모델의 표본으로 표상되었다. 즉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 그리고 두 세 명의 자녀, 이렇게 구성된 5인 가족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sup>50)</sup>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평범한 가족을 중심으로 청취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에피소드들을 밝고 명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내 갈등은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 일어나며 쉽게 해결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공처가 3대>에서 공처가 남편들은 가정에서 경제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에게 기죽어 살며 갈등을 하지만 극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sup>51)</sup>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벌인 사건은 간

49) 최요안, 앞의 책, 120면.

50) 김예림, 앞의 글, 362면.

51) 1960년대는 중산층에서 전업주부가 형성되는 시기로, 가정의 전담자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임을 의식화시킨다. 또한 부부간의 평등화 경향이 확대되어 아내의 잔소리를 좋은 의미에서 충고,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공처가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아내 무섭장이’로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아내를 중히 여기는 애처가로 봐야 한다는 담론이 나타나며 남편의 성공이 아내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는 내조론이 성행하였다(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 정치』, 『사회과학연구』 제 15권 1호, 2007, 162면).

단한 소동으로 끝나며 웃음을 유발한다. 또한 작은 에피소드들은 화해로운 가정을 강조하여 건전한 가족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는 홈드라마에서는 “비극적인 결말, 어두운 분위기, 사회 부정적 태도, 특수한 이상심리 등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2)</sup>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서 건전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방송 태도는 연속 홈드라마의 경우보다 훨씬 뚜렷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방송은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당시 홈드라마를 오랫동안 집필했던 작가 박서림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53)</sup>

방송에 사투리란 물론 용납되지 않았어요. 드라마의 사투리조차도 극히 문학성 짙은 작품에서만 선택되곤 했죠. 특히 홈드라마에서는 속어도 쓸 수 없었어요. 내가 쓰던 홈드라마에서 “웃기네” “근사하다”를 쓰게 된 때까지는 수 년의 망설임을 요할 정도로 모두 건전한 방송풍토, 방송언어의 순화에 신경을 쓰고 있었죠. 어느 신인작가가 아침 홈드라마에 “발 코란내” 얘기를 썼다가 호된 견책을 받고 도중하차하는 사고가 다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이런 경직된 풍토를 좋게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의 풍토도 좋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시 홈드라마 주인공들의 생활윤리는 순결하고 참용성 있고 희생적이고 인정이 있었어요. 드라마 주인공에게도 자격이 있었다고 할까? 불륜이나 폭력, 음모 등은 작품 선정 과정에서 엄격

52) 하유상, 앞의 책, 159면.

53) 박서림은 연속극 1963년 <광복동의 여우>(MBC, 1963), <시동생>(KBS, 1964) 등으로 라디오 작가로써 활동하였다. 또한 <아차부인 재치부인>(RSB), <즐거운 우리집>(KBS), <오늘도 푸른하늘>(DBS) 등의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를 오랫동안 수천회 집필하였다. 그는 정부수립 10주년 기념 1958년 서울중앙방송국(KBS) 장편소설 공모에 <장마루촌의 이발사>라는 작품으로 당선하였다. KBS 주관 1961년 단막극 공모에 작품 <살아 있는 무의식>으로 당선하여 <새벽길>(KBS, 61), <파리들의 상하원 합동 회의>(MBC, 1962), <자유와의 대화>(KBS, 1962), <대리석과의 대화>(KBS, 1962) 등의 수많은 작품을 썼다.

하게 걸러졌어요.<sup>54)</sup>

1960년대 방송에서는 소재, 주제뿐 아니라 대사 하나하나를 엄격한 기준에 의해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나 인물의 행동 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 작품의 이야기 구성은 일상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상사가 반복되며 매회의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간단한 갈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일상생활 즉 흔히 있는 환경 속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산만해지기 쉽고 기록이 없는 평범한 사건의 되풀이만으로 끝나 버리는 일이 되기 쉬웠다. 따라서 “교묘한 생략과 섬세한 표현, 경쾌한 템포가 필요했으므로” 집필하는 작가에게는 쉽지 않은 작품이었을 것이다.<sup>55)</sup> 또한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대부분 100회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한 작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한 작품을 쓰기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문, 주간지, 수필집, 만화 등 다양한 책들을 섭렵하여야 했고 ‘유머’라는 낱말이 붙은 책, 미담 등 모든 읽을거리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에피소드를 매회 구성해야 했다.<sup>56)</sup> 그러므로 장수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작가들이 이어서 쓰는 방법을 보완책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동 집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작품 형식과 성격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다.

1960년대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건전한 가정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이상적 가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오전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때나 저

54) 박서림 개인 인터뷰, 2010.3.8, 대학로 예총회관.

55) 하유상, 앞의 책, 160면.

56) 박서림 개인 인터뷰.

녁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매일 반복되는 이 드라마는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적인 사회를 꿈꾸게 하게 적극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4. 결론

라디오 홈드라마는 1950년대 후반부터 멜로드라마와 함께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홈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일정하게 지속되어왔으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이때 홈드라마는 ‘가족 중심의 이야기로 가족회복이라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가진’ 다는 포괄적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였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연속홈드라마와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

연속 홈드라마인 경우 1950년대 후반의 홈드라마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재, 주제 등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는 불안정한 가정의 갈등현상을 보여주면서 화해의 과정을 통해 행복된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50년대 후반의 연속 홈드라마와 유사하다. 그러나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1960년대 연속 홈드라마에서는 가족 갈등 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며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한 가족 재건이 강화되어 있다.

1960년 중반부터 활발히 방송되었던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연속홈드라마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는 처음 정착되기 전까지 연속극의 의미가 부각되어 연속 홈드라마와 별다른 차이점 없이 사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각 방송사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를 고정적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정한 규칙들을 가지게

되면서 연속 홈드라마와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연속 홈드라마에서 가족 간의 갈등 제시는 가족 복원 서사의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이에 반해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서 가족 복원은 이미 상정된 전제 하에 가족 재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에서 가족은 균열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이미 안정적인 가족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작품들은 이상적 가족 모델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조건에 부합되는 일정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의 이야기 구성은 일상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상사가 반복되며 매화의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간단한 갈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시추에이션 홈드라마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이처럼 라디오에서 홈드라마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에는 분화와 특화의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라디오 홈드라마의 작품성향과 변이는 1960년대 영화에서의 홈드라마 제작현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시기 홈드라마로 규정되는 대다수의 영화들이 라디오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디오 홈드라마는 1970년대 텔레비전 드라마가 정착되는 시기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라디오 홈드라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의 연계성을 가지고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며, 시대에 따라 특성화되고 있는 홈드라마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1차 텍스트의 보완을 통해 다음 연구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서림 개인 인터뷰, 2010.3.8, 대학로 예총회관  
 방송문화연구소, 『방송』, 1961~1963.  
 한국방송문화협회, 『KBS 연감』, 1963.  
 한국방송연감편찬위원회, 『한국방송연감』, 1965.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사』, 1977.

## 2. 논문 및 단행본

김영희, 「한국의 라디오시기의 라디오 수용현상」, 『한국언론학보』 제47권 1호, 2003.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2007.  
 고선희, 「한국 텔레비전 초기 가족 드라마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0.  
 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 1995.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 정치」, 『사회과학연구』 제 15권 1호, 2007.  
 조향제, 『한국 방송의 역사와 전망』, 한울, 2003.  
 주창윤, 「로맨틱 시트콤의 장르 관습의 미학」, 『텔레비전 드라마』, 문경, 2005.  
 정영희, 「196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여성지 '여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3호, 2009.  
 임종수, 「한국방송의 기원」,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2004.  
 이영미, 「1950년대 방송극」 『대중서사연구』 제17호.  
 양진문 「한국 방송극의 역사적 고찰」, 『한국연극연구』, 2003.  
 안환웅,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시대별 주요 홈드라마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3.  
 윤석진, 「라디오 드라마 연구를 위한 시론」, 『인간, 사회,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강대 언론대원 개원 5주년 기념 논문집, 1997.  
 \_\_\_\_\_, 「1960년대 라디오 단막극 연구-가부장제의 해체와 복구 실상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10집.

윤금선, 「1960~70년대 초기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 32집, 2010.  
 최요안, 『방송극 연구』, 입문사, 1963.  
 하유상, 『라디오, TV 드라마 작법』, 성문각, 1971.

## Abstract

## Formation and work Characteristics of 1960's radio home drama

Moon Sunyoung

The eagle is the discussion for the research which 1960's radio drama is variou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tried to observe the formation process and a work quality of radio home drama. The radio home drama from latter half of 1950's is the style which is together continued with a melodrama. Interest from latter half of 1950's uniformly about home drama, was maintained. Develops in earnest, the fact that starts is 1960's. At this timely home drama talk in `family centers, to happy is a family recovery, happy ending ' Was and was used with broad sense. If formal is and from serial home drama and situation home drama is two kind is a home drama.

Case is a serial home drama fome drama of latter half of 1950's and there is piece which is similar. But there is change of subject matter and subject etc. 1960's continuous home drama father (male) mother (woman) moved with the center from the center from point is different. Being a mother center in the mother (woman) puts a problematic cause. And recovery of the mother leads and to emphasize the reconstruction of the family.

From middle 1960 actively serial home drama and situation home drama which is broadcast system the home drama is distinguished with continuous home drama. home drama was embossed meaning the serial drama to initially and with continuous home drama distinction was without used. Is organized but gradually with fixation program and the rules which are fixed has. serial home drama and situation home drama is repeated and the ordinary company of the family will make the episode of every time and a thing. The discord which is simple leads and solves a problem. And is to deliver the message which is hopeful.

The work propensity and change of radio home drama with home drama production site of 1960's movie is relationship. Therefore is important. These timely home drama movies radio drama is because doing with the original work. Also the radio home drama in the time where 1970's teleplay becomes fixed many influence and a possibility of seeking a questionable matter from point gives there is. Therefore from the radio the home drama is important because influencing to at that time movie and the television drama.

Key words : radio drama, home drama, situation drama, Family, television drama

접 수 일 : 2011년 3월 6일

심사기간 : 2011년 3월 7일~3월 19일

게재결정 : 2011년 3월 19일